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하느님 아버지, 성자를 보내시어 저희가 임금의 사제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정신을 밝게 비추시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 죽은 이들의 만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께, 충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서한석 시메온, 김수희 아네스 가정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연중 제34주일(11/22)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6(목)이지만, 이날 대축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본당회관명칭 확정

- 명칭: "나자렛관"
명칭공모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총구역회

- 일시: 11/22(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제16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 일시: 2015.12.26.(토) 오후 04:00 - 12.28(월) 오후 05:00
장소: Holy Name Retreat Center, 430 Bunker Hill Rd., Houton, TX 77024
주최: 중남부 성령 봉사자 협의회

본당 대청소

- 일시: 대림 제1주일(11/29)

성탄 판공고해성사

- 일시: 12/10(목), 11(금), 12(토)
장소: 각 구역별 지정 가정

새로 오신 가정

- 신혜영 요셉피나 가정, 716-481-4287
한혜승 헬레나 가정, 617-777-2267, Overland Park.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78, 219, 502, 501, 78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복사 내용. Includes names like 고평원 프란치스코, 이원준 요한,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Includes names like 박혜정 카타리나, 김주연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11/15, 75명, 385불, 1,100불. Includes names like 현교정, 김병철, 김대연, 이우영(총 4 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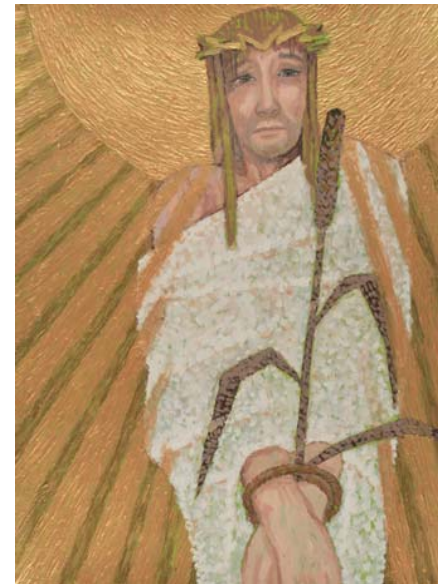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냅니다. 또한 이 주간은 성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끝 날까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림 묵상

사랑과 연민의 왕
예수님께서서는 비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사랑과 연민의 왕이십니다. 황금빛 찬란한 슬픔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당신의 눈동자를 마주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3-14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다.>



주 님 께 서 는 임 금 님 위 엄 을 차 리 셧 도 다 -

- 주님께서서는 임금님 위엄을 차리시니 주님께서 차리시어 권능을 띠 띠시니 우리가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나이다.
당신의 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니 영원부터 당신께서는 계시나이다.
당신의 증거는 너무나도 미더운 것 당신의 집안에는 거룩함이 제것이니 길이길이 주님 그러하리이다.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5ㄱ-8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33-37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쉐 마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한 해가 조금 더 남았지만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마치 왕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걸렸던 죄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죄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십자가 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 심문하는 장면이지만 여기서도 역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번에 걸쳐 빌라도는 예수님께 임금이라고 묻습니다. 질문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마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묵시록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말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요한 묵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의 표현은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다니엘 예언서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은 모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먼 훗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지, 무엇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구원을 위한 삶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신앙인의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분이 이끄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땅이나 지역, 그리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지만 여러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러 걱정들과 욕심들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회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나의 믿음을 위해 노력했는지, 또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반성과 참회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무엘 예언자의 어머니, 한나

삼손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비교될 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남편 엘카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 엘카나의 또 다른 아내 프닌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혔고, 한나는 서러워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큰 수치였고, 사회적 위치마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벌로 여기기도 했는데, 그런 한나에게 남편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1-8

한나는 항상 하느님께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의지할 데는 오직 하느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사제는 성전 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도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무엇이라 청하였을까요? 또 엘리 사제는 그녀를 슬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9-18

사제의 위로 한마디에 힘을 얻은 한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고, 그녀의 얼굴도 더는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 자신이 하느님께 한 약속대로 성전에 있

는 사제 엘리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어린 아들을 사제에게 맡긴 한나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받은 수모와 고통을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느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려 아들 사무엘을 하느님께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19-2,10

한나는 자기 아들이 하느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은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임금을 뽑아 크게 발전시켰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이런 일들은 모두 한나가 하느님과 약속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과 약속을 지켰던 한나의 삶은 우리 믿는 이들에겐 큰 모범이 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고생하시오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왕관이라는게  
슬픔의 왕관  
부조리의 왕관  
나뉘고 갈림의 왕관 일진데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8,37)

고생하시오  
그리스도